



#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19년 3월 15일

제 33 호

• 발행인 : 차인태 • 편집장 : 황인우  
• 주 소 :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0층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10-9025-4663, 070-7501-3842

## 아나운서클럽 제9대 차인태 회장 취임

3월 5일 여의도서 2019 정기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차인태 회장과 함께 아나운서클럽을 이끌 새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뒷줄 왼쪽부터 원종배 부회장, 황인우 편집장, 채영신 사무총장, 김규홍·김채영 부회장, 박민정 감사, 김상준 부회장, 이후재 감사, 이계진 부회장

차인태(전 MBC) 아나운서가 임국희(전 MBC) 회장에 이어 제9대 아나운서클럽 회장을 맡았다.

아나운서클럽 2019 정기 총회 및 제9대 회장 취임식이 3월 5일 오후 6시 30분 황우겸 고문을 비롯해 한국방송인동우회 한영섭 명예 회장, MBC 변창립 부사장, KBS사우회 김광일 회장, SBS사우회 손석기 회장, 춘추동방송 블로그 이장준 운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민정(전 MBC) 사무총장의 사회로 여의도 열빈에서 열렸다.

제8대 임국희 회장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 인사말을 하게 되었다.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라며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임사를 낭독했다.

이어 박민정 사무총장이, 아나운서클럽 정관에 따라 고문단 회의에서 부회장 가운데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는 아나운서클럽 회장 선임 과정을 소개했고, 회원들이 박수로써 제9대 차인태 회장의 취임을 축하해주었다.

윤지영(전 SBS) 편집위원의 신임 회장 약력 소개 후 차인태 회장은 “한 마디로 벼락을 맞았다. 1969년 입사 후 50년, 그 동안 이런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 덕분이라 생각한다.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드린다.”라고 인사했다.

새 집행부는 김규홍(전 KBS), 김채영(전 MBC), 이계진·김상준·원종배(전 KBS) 부회장, 채영신(전 KBS) 사무총장, 이후재(전 KBS), 박민정 감사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성선경(전 DBS), 송현식·김재익·이병혜·이숙영·신은경(전 KBS), 정홍숙·백연숙·남궁미·김창욱(전 MBC), 차기정(전 CBS) 회원이 새롭게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제9대 차인태 회장은 “참석해주신 황우겸, 임택근, 강영숙, 전웅덕, 최만린 고문님과 강영숙 고문의 부군이신 방우회 한영섭 명예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후배 아나운서들이 축하하러 와준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 50년대에 방송을 시작한 원로 선배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자리 아닌가.”라고 말했다.

황우겸 고문의 격려사, MBC 변창립 부사장, 지상파 방송 3사 사우회장의 축사가 이어진 자리에서, 변창립 부사장은 “84년 입사 당시 1부장이신 차인태 선배님처럼 ‘방송 잘하겠다’ 맘먹고 열심히 따라다녔다. 차인태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계속해서 뒷모습 보며 열심히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했고,

SBS사우회 손석기 회장은 “이 자리에 서니 지난 날이 그립고 앞날이 기대된다.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 취/임/사



차인태(전 MBC) 회장

1944년 평북 벽동 태생, 연세대 성악과 졸업, ROTC 임관 후 1969년 MBC 입사, <장학 퀴즈>, <별이 빛나는 밤에>, <출발 새 아침> 등 진행, 아나운서실장, 편성이사를 지내고 1995년 퇴사 제주 MBC 대표, 경기도 다중매체영상학부 교수, ROTC중앙회 제10대 회장, 평북도지사겸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협성대 석좌교수, 대통령 통일고문회의 고문, MBC아카데미스피치 최고위과정 원장, MBC사우회 회장

## 우리의 얼과 역사 지키는 파수꾼

아나운서 여러분께 성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1927년 2월 16일, 일제 하에서 JODK 경성방송국이 개국 開局했습니다. 90년 넘게 이 땅에 방송放送이 이어져오면서 그 맨 앞에는 우리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우리말의 구사, 국민 언어 생활의 교사, 우리의 얼과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 열정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지켜오신 선배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나운서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나운서는 고독한 직업입니다. 아나운서는 끝없이 노력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아나운서클럽의 역대 회장님, 고문님, 선배님과 아나운서 동역자同役者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방송사의 현역 아나운서를 포함해 해외海外에 계신 아나운서들의 관심과 참여, 성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마음과 흡사한 시詩가 있어 끝인사로 같음합니다.

### 나와 잠자리의 갈등

안도현

다른 곳은 다 놔두고  
굳이 수숫대 끝에  
그 아슬아슬한 곳에 내려앉은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따지듯이 물으면  
잠자리가 나에게 되묻는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 MBC 차미연, 아나운서연합회장 맡아

지역사 근무 환경 개선, 아나운서 직군 연수 기회 확대하겠다



차미연 연합회장과 전임 염용석 아나운서

MBC 차미연 아나운서가 제 18대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와 함께 연합회 소속 9개 회원사 KBS 이영호, SBS 윤현진, CBS 박재홍, tbs 정현주, cpbc 김부궁 FEBC 송옥석, JTBC 임경진, BBS 김명석 아나운서가 협회장으로 활동한다.

2000년 1월 입사한 차미연 아나운서는 “지역사 아나운서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아나운서 직군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싶다. 다소 모호하게 쓰이고 있는 ‘아나운서’란 명칭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3월 5일 염용석 전 회장을 만나 명의 이전 등록을 마친 차미연 회장(사진)의 취임식은 3월 중에 열리며, 임기는 2년이다.

다음 정례 모임은 6월 4일(화) 오후 6시 30분 열빈

### 특집 2019 정기 총회 및 제9대 차인태 회장 취임식



동아제약  
東亞製藥



## 지난 날이 그림고 앞날이 기대되는 자리

‘소녀 같은 감성과 목소리를 지닌 최초의 여성 회장’ 제8대 임국희 회장은 “얼마 전 ‘퀸’을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았다. 퀸을 방송에서 처음 틀었던 기억이 새로웠다. 영화에서 소개된 ‘위 아더 챔피언’의 ‘힘든 일도 많았지만, 박수도 받았다. 우리 모두 챔피언’이란 가사가 유난히 가슴뭉클하게 와 닿았다.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좋은 모임을 이끌어왔다. 자랑스러웠고 영광스러웠다. 중책을 맡은 새 회장님께 무한한 격려와 사랑을 보낸다.”라고 감동의 이임사를 낭독했다.

차인태 회장은 전임 임국희 회장에게 순금 감사패를 수여했다. 임국희 회장은 방송 잘하는 후배에게 주는 황금메아리상 제정, 스마트폰 주소록 제작, 50+ 코리안미디어협동조합·시청자미디어재단과 MOU 체결 등은 물론 상암 MBC 신사옥 견학, 2차례 경남 창녕 고택 여행, 경기도 파주 헤이리 나들이, 동아제약 천안공장 견학, 송년 영상콘서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클럽 모임을 활성화시켰다.

KBS 김현태 실장은 윤지영 제1팀장, 김희수 한국어연구팀장, 이영호 아나운서협회장, 백승주 아나운서협회 부회장과 함께 나와 “앞으로 클럽 모임에 현역 모두가 한 번씩은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MBC 황선숙 국장은 신동진 1부장, 박경주 2부장, 차미연 연합회장, 김범도,

구은영, 오승훈 아나운서와 함께 상암 이전 시 철거한 MBC 복도 홍보 사진을 차인태 회장에게 전달하며 “연습벌레만이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다 믿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CBS 김용신 부장은 제2회 황금메아리상 수상자 이명희 아나운서, 박재홍 협회장과 함께 “19명이 근무하지만, 다른 어떤 채널보다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다.”라며 선배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했다.

극동방송 맹주완 편성국장은 “차 회장님이 제주MBC 대표일 때 제가 근무하던 제주극동방송에서 자원봉사로 인터뷰 방송을 진행해주셨던 인연이 있다. 서울 9명 등 전국 50명의 극동방송 아나운서들이 작지만 경품을 마련했다.”라며 쌀과 립스틱을 제공해, 방송 시작년도인 1927년을 맞춘 이병혜 회원과 초록회 회원들이 당첨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차미연 연합회장은 소속사 협회장들과 함께, “퇴임하시는 임국희 회장님의 수고하심과 신임 차인태 회장님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꽃다발을 선사했다.

차인태 회장이 “아나운서가 갖게 되는 치명적 약점 중에 하나가 마이크 잡으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폐회사와 함께, 2019년도 첫 행사는 변창립 부사장의 식대 협찬과 황우겸 고문의 주선으로 동아제약 강신호 명예회장이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선사함으로써 한층 풍성하게 마무리되었다.



KBS사우회 김광일, SBS사우회 손석기 회장도 함께 축하

임국희 전 회장에게 감사패 수여 '황금메아리상 제정과 다채로운 이벤트로 클럽을 더 즐겁고 풍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격려사

## 차인태 회장과 함께 아나운서클럽이 더 발전하기를



황우겸(전 KBS) 고문

아나운서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방송 매체를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말을 다듬어 고운 말, 바른말을 사실대로 전하는 선택받은 공인으로서 아나운서의 세계는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위계 질서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니고 있다. 1991년 ‘한 번 아나운서는 영원하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지닌 퇴역 아나운서들의 모임 아나운서동우회로 시작하여 아나운서클럽으로 발전해 벌써 30여 년이 되었다. 그간 8대를 거쳐 오며 우리 클럽을 법인으로 등록하였고 특히 아나운서클럽회보를 창간 발행하여 국내외 주요 기관과 우리 회원은 물론이고

전국의 현역 아나운서들에게도 활동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 모임을 활성화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강찬선, 임택근, 전영우, 박종세, 최만린, 김동건, 임국희 등 역대 회장, 그리고 매사에 꼼꼼히 우리 클럽 운영을 위한 우리의 보배 김규홍 부회장, 박민정 사무총장, 김상준 감사, 황인우 편집장과 운영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인품에 다재다능함도 겸비한 차인태 회장에게 응원을 보내며, 차회장의 취임으로 우리 아나운서클럽이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 축사

## 자랑과 긍지의 원천 한국아나운서클럽 위해 힘 보태겠다



미주방송인협회  
홍우창(전 TBC) 회장

한국아나운서클럽 제9대 차인태 회장님의 취임을 미주 지역 전 현직 모든 방송인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임하시는 임국희 회장님을 비롯해 지금까지 아나운서클럽을 훌륭히 이끌어 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그동안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여 아나운서클럽을 빛내주신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고국을 떠나 멀리 있지만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아나운서클럽회보 등을 통해 그리운 선후배들의 소식을 접하며 이곳 미주 방송인들은 반가움을 넘어 자랑과 긍지가 차오릅니다.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 오락화로 인한 많은 염려 속에서도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 우리 아나운서들은 오늘도 방송 현장에서 품격이 있는 방송과 바른 우리말 계승 등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나운서클럽은 이같은 우리 후배 아나운서들의 든든한 기둥이요 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아나운서면 영원한 아나운서’이기에, 우리 모두 함께 아나운서클럽의 더욱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차인태 회장님의 제9대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지구촌에서 서로 끈끈한 우정 이어지게 해주소서



워싱턴미주방송  
박용찬(전 MBC) 대표

한국아나운서클럽 제9대 회장으로 차인태 회장님이 취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1970년대 MBC 라디오 구조정실 MD로 근무할 때 활발하게 활동하신 차인태 아나운서를 제9대 회장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가 좋아서 56년째 현역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KBC USA 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300여 명의 선후배 아나운서들이 한 시대에 아나운서로 산다는 사실이 저의 자부심입니다. 이곳 미국방송에서는 아나운서란 직종은 없습니다. News

Caster와 News Anchor 뿐입니다. 외래어인 Announcer가 한국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나운서’ 직종으로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전공을 익히고 아나운서가 된 우리들은 다른 직종에서 부러워하듯 선후배로서 정을 나누며 지냅니다. 해외에 사는 우리도 아나운서 출신이라면 친척보다도 더한 우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차인태 회장님은 해외에 사는 아나운서 출신들을 많이 찾아주셔서 지구촌에서 서로 끈끈한 우정이 이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경 전 부회장 '함께해줘 고마워요'

박찬숙 전 부회장과 춘하추동방송 이장준



동영상, KBS사우회 류인창 회원



사진, KBS사우회 박재현 이사

### 특집 2019 정기 총회 및 제9대 차신태 회장 취임식



禹田 孟寬泳 祝賀揮毫

桃實如斗 千秋萬壽

3,000년마다 한 번 열리는  
 신선 세계의 복숭아 반도蟠桃 열매가  
 1말(斗)만큼 크니,  
 천만호千萬號까지 무궁 발전하소서.  
 신임 회장 취임과 회보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휘호 작가 맹관영 (사)한국서예협회, 한국문인화 협회 고문  
 1967년 TBC 입사, 1997년 KBS 정년퇴직  
 대한민국서예대전, 대한민국문인화대전 심사위원장,  
 대한민국 서예문인화 원로 총연합회 회장 역임  
 회보 제호 작가



“ 아나운서라면 소속사와 나이 상관 없이 즐겁게 어울리는 한국아나운서클럽 ”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CBS 이명희, 국군방송 전찬희, 황인우(전 KBS), 이인숙 · 남궁미(전 MBC), 전우백(전 KBS), 최화숙 · 조일수 · 안주혜(전 MBC), 이세진(전 KBS), KBS사우회장 김광일, 손석기(전 SBS), febc 맹주완, 정도영 · 박영웅 · 김재익 · 이보길(전 KBS), 양진수(전 MBC), 주건국 · 김상준(전 KBS), 조석영 · 반주원 · 이명희(전 MBC), KBS 김현태, 이계진(전 KBS), KBS 김희수, MBC 변창립 · 오승훈 · 김범도, 김창욱 · 박선영(전 MBC), 박찬숙(전 KBS), 정연호(전 MBC), 이후재 · 이혜옥(전 KBS), 윤희자 · 정영희 · 김채영 · 정흥숙(전 MBC), 차기정 · 이지연(전 CBS), 윤영중(전 KBS), 성선경(전 DBS), 권장수 · 김병래 · 신은경 · 김규홍(전 KBS), 방우회 명예회장 한영섭, 맹관영 · 배덕환 · 최만린 · 전영우 · 황우겸(전 KBS), 임택근(전 MBC), 전응덕(전 MBC), 강영숙 · 임국희 · 차인태(전 MBC), 조길재(전 KBS), 김채영(전 MBC), 조석영 회원 부인 박찬열, BBS 김명석, MBC 신동진 · 차미연 · 황선숙, cpbc 김부규, MBC 구은영, OBS 김준우, febc 송옥석, CBS 박재홍, 원종배 · 이병혜(전 KBS), 박민정(전 MBC), 유지현(전 SBS), 이숙영(전 KBS), 춘하추동방송 블로그 운영자 이장춘



### 아나운서 출신들 지상파 방송 3사 사우회에서 맹활약

MBC 차인태 회장 정연호 부회장 조일수 권혁화 이사, KBS 채영신 이사 선임, SBS 손석기 회장 박영만 이사



차인태 회장, 정연호 부회장, 조일수 · 권혁화 이사



채영신 이사



손석기 회장, 박영만 이사

2월 27일 열린 MBC사우회 정기 총회에서 차인태 회장을 비롯해 정연호 부회장, 조일수 · 권혁화 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신입 채영신 사무총장이 2월 22일 열린 KBS사우회 정기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편 2018년 2월 출범한 SBS사우회에서도 손석기 회장과 함께 박영만 이사가 활동 중이다.



### 클럽 회보 창간 8주년 맞아 편집진 새롭게 구성

클럽 회보 창간 8주년을 맞아 편집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편집장 황인우 · 김규홍 · 채영신(전 KBS), 이현우(전 MBC), 유지현 · 윤지영(전 SBS) 편집위원이 함께한다. 그동안 애써준 이해옥 · 황량(전 KBS), 이형균(전 MBC) 회원 등 전임자에게 감사 인사드린다.

왼쪽부터 이현우, 유지현, 황인우, 채영신, 김규홍



### 이영호 KBS 아나운서협회장 취임식 축하사절단

1월 17일 오전 KBS 본관 지하 아나운서교육장에서 아나운서연합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BS 협회장이 취임식이 있었다. 김규홍 부회장, 황인우 편집장, 윤지영 편집위원이 윤인구 아나운서에 이어 제20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영호 아나운서를 축하해주었다.

왼쪽부터 김현태, 윤인구, 이영호, 김규홍, 황인우, 윤지영

### 정홍숙(전 MBC) 운영위원 최계환 고문 문병, 안용민 김승한 회원도 와병 중



정홍숙 운영위원이 2월 8일 1964년 당시 MBC 아나운서실장으로 자신을 뽑아준 최계환 고문을 문병했다. 최 고문은 하반신 마비가 와 5개월째 서울 양평동4가 대명요양원(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99, 9호선 선유도역 5번출구, 장남 연락처 010-5240-0671) 605호실에서 지낸다. 이를 계기로 투병 중인 회원의 소식을 신는다.



최계환 고문



안용민 김승한

1961년 KBS TV 개국 1기로 입사, 1969년 CBS로 이직, 아나운서실장, 체육부장을 지냈고 대구, 부산 본부장을 지낸 안용민 회원은 2013년 9월에 뇌경색이 발생해, 자택인 서울 응봉동 대림강변타운(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160, 105동 1902호, 부인 연락처 010-3706-2885)에서 병원을 오가며 투병 중이다. 1963년 입사, 1994년 퇴직 후 불교TV에서 근무한 김승한 회원은 2017년 7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인천 라이온재활요양병원(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사위 연락처 010-5265-2901) 913호실에서 재활 치료 중이다.

병상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회원 여러분의 방문으로 새 봄의 온기를 느껴 쾌차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아나운서 출신 장관, 야당 사무총장

박영선 한선교(전 MBC)



박영선(서울 구로출) 의원이 3월 7일 아나운서 출신으로는 최초로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박 의원은 1981년 공채 9기 KBS출신 아나운서로 출발해 이듬해 MBC 아나운서로 입사, 뉴스 앵커로 활약하다가 기자로 전직, 로스앤젤레스 특파원과 경제부장을 역임했다. 2004년 17대 국회에 진출한 4선 의원으로 제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한선교(경기 용인시병) 의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의해 3월 4일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1984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한 한 의원은 1995년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약하다 제17대 국회에 입성한 4선 의원이다.

### 용인시 지역 최우수 노인회장상 수상



김규홍(KBS) 부회장

2월 15일 대한노인회 용인시 지회에서 관내 우수 노인회장상을 수상했다. 6년간 재임하며 경로효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청소년을 선도하며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선 공로이다.

### 후배 아나운서 서점에서 북콘서트 개최

신은경(전 KBS) 운영위원



2월 11일 오후 7시 30분 김소영 · 오상진(전 MBC) 부부가 운영하는 '당인리책발전소'에서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프리랜서로 채널A <행복한 아침> MC 맡아



이재용(전 MBC)

1992년 입사, <불만제로>, <기분 좋은 날>, <아주 특별한 아침> 등을 진행하다 2018년 퇴사 후 아이오케이컴퍼니 TN엔터사업부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2월 11일부터 채널A 아침방송 <행복한 아침>의 MC로 활약 중이다.

### 4월 초 디저트 카페 '체리블리' 개업 예정



오정연(전 KBS)

4월 초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디저트 카페를 개업한다. 체리블리(CherryBly,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길 24, 오전 10:30~오후 10:30)를 찾아주시는 아나운서클럽 회원에게는 특별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 의원은 2006년 입사, <도전골든벨>, <6시내 고향>을 진행하다 2015년 프리랜서를 선언했으며, 현재 TV조선 <알맹이>, tvn <나이거참>에 출연 중이다.

#### 고맙습니다

3월 10일까지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분



엄복연(전 KBS) 30만 원



이후재(전 KBS) 30만 원



황인용(전 TBS) 30만 원



강미란(전 KBS) 미 시애를 20만 원



김상준(전 KBS) 50만 원



신은경(전 KBS) 30만 원



이병혜(전 KBS) 30만 원



백연숙(전 MBC) 20만 원



이지연(전 CBS) 30만 원



MBC초록희 100만 원



차기정(전 CBS) 30만 원



정보영(전 MBC) 30만 원

#### 축하합니다

황인우(전 KBS) 6월 1일(토) 오후 5시 우이동 선운사에서 딸 번시몽 양 혼사  
신의석(cpb) 5월 12일(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성당에서 교사와 혼인  
정지원(KBS) 4월 6일(월) 오후 6시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영화감독과 혼인  
조은유(OBS) 1월 4일 특남  
유혜영(SBS) 12월 7일 남녀 쌍둥이 출산

#### 조의를 표합니다

강성곤(KBS) 1월 24일 장인상  
강미란(전 KBS) 1월 17일 모친상  
손정은(MBC) 1월 5일 부친상

####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진 3월 31일 KBS 정년퇴직  
김성수 1월 31일 KBS 정년퇴직

KEB하나은행 358 - 910003 - 70805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 방 | 송 | 가 | 소 | 식



## KBS 조직 개편 단행으로 아나운서실 편성본부 소속

3월 1일부터 콘텐츠 중심, 디지털 혁신, 시청자 권익 강화와 지역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제작·마케팅·콘텐츠 사업을 통합한 '제작 2본부'를 신설해 우수한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공영 미디어로 진화하기 위해 전략

기획실에 PSM(Public Service Media) 전략부 신설, 보도본부 내 디지털 뉴스의 기획·제작 기능 강화 등 디지털 관련 조직을 대폭 혁신했다. 또 사장 직속의 '시청자센터'를 구축하고 시청자 참여와 미디어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나운서실도 부사장 직속에서 편성본부 소속으로 바뀌었다.

## 1월 1일 뉴스 개편, 메인 앵커와 타이틀 음악 교체



(KBS뉴스9) 이각경 염경철

KBS 뉴스가 새해 첫날을 맞아 앵커진을 전면 교체했다. <뉴스9>에는 평일(월~목)

염경철 기자, 이각경 아나운서, 주말(금~일)은 김태욱 기자, 박소현 아나운서가 새롭게 투입되었다. <뉴스7>은 박노원, 김솔희 아나운서가 새 앵커로 선을 보였다.

한편 이번 개편과 함께 <뉴스9>과 <뉴스7>은 윤상이 작곡한 새 타이틀 음악과 함께한다.



## 조건진, 대한씨름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3월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대한씨름협회(회장 박팔용)로부터 20년동안 중계하며

씨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아나운서는 2월 4일 전라북도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19 설날장사 씨름대회'에서 황경수 부회장에서 감사패와 순금송아지상을 받았다.

## 전국노래자랑 아나운서 특집 3월 3일 방송

2월 24일 녹화한 전국노래자랑 아나운서 특집 방송에 본사뿐 아니라 지역 총국의 아나운서들도 참여해 재능을 뽐냈다. 또한 아나운서들이 방청석에서 펼치는 열띤 응원도 재미를 보태주었다.

최승돈, 이정민 아나운서를 비롯해 임수민, 한상현 아나운서가 듀엣으로 참여해 주목을 받은 전국노래자랑 아나운서 특집은 3월 3일 방송되어 동시간대 시청률 순위 1위를 차지했다.



## 'MBC 아나운서국 미디어데이' 거행



아나운서국이 2월 25일 MBC 경영센터 M라운지에서 MBC 임직원 및 외부 언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9 MBC 아나운서국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황선숙 국장은 이 자리에서 "MBC 아나운서를 '리브랜딩'하기 위해 아나운서 1인 매니지먼트 체제를 도입하고, 'MBC 아나운서 낭송회'의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고궁 낭송회'를 선보일 예정이며, 우리말과 북한 말을 비교, 소개하는 '겨레말을 찾아서' 등 공익 콘텐츠도 새롭게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미디어데이를 앞두고 아나운서 31인의 사진집 발간을 이끈 구은영 아나운서는 "지난 수년 간 시청자들과 소통할 기회가 적었다. 이번 사진집을 통해 MBC 아나운서 개개인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었다."라고 발간 이유를 밝혔다.

한편 MBC에서는 자신의 콘텐츠와 이야기로 방송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미 임현주 아나운서의 낚시 체험 채널인 '임아나 채널', 강다솜 아나운서의 ASMR 채널인 '솜디랑', 서인 아나운서의 '서답서담' 등 아나운서들의 채널을 운영 중이다.

## 허일후, 독립운동가 후손 다룬 다큐 진행



허일후 아나운서가 배우 손현주, 홍수현, 가수 폴킴과 함께 독립 영웅들을 재조명하는 다큐 4부작 <백년만의 귀향, 집으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헌신하느라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찾아 그들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로 4월 1일 첫 방송된다. 한편 촬영 중 만난 후손들과 세계 각지에 흩어진 독립운동 유적지를 촬영한 사진은 4월 10일부터 MBC 1층 로비에 전시될 예정이다.

## 김정근 재입사, 김초롱 출산 휴가 후 복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작년에 재입사를 결정해 화제를 모은 김정근 아나운서가 3월 4일자로 정식 직원이 되었다. 또한 지난해 11월 출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났던 김초롱 아나운서가 2월 11일자로 복귀했다.



## 개국 이래 첫 여성 아나운서 최영주 팀장



공채 1기 최영주 아나운서가 작년 12월 1일부로 아나운서 팀장으로 임명되어 SBS 개국 이래 최초의 여성 아나운서 팀장이라는 기록을 갖게 되었다. 최영주 팀장은 1991년 공채 1기로 입사해 <모닝 와이드>, <SBS 생활경제>, <백세 건강시대>를 진행하고 리듬체조, 골프 중계 캐스터로 활약했으며 경희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편 신입 아나운서가 3개월간의 인턴 기간을 수료하고 정식 사원으로 발령받아 김수민 아나운서는 <모닝 와이드 '생생 지구촌'>, 김민형 아나운서는 라디오 뉴스에 투입되었다.

## 김주우 <접속 무비월드> 투입



뛰어난 영어 실력과 좋은 음성으로 주목받는 김주우 아나운서가 <접속 무비월드>에 투입되었다. 김 아나운서는 영어 인터뷰와 내레이션을 맡는다.



## 맹주완, 편성국장으로 승진



맹주완 아나운서가 2월 1일자로 서울극동방송 편성국장을 맡았다. 1994년 극동방송에 입사한 맹주완 국장은 제작1팀장, 제주, 포항,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울산, 대전극동방송 방송부장을 거쳐 대외협력국장, 총무국장, 양육부장을 역임했다.

## 전북극동방송 시험 방송, 4월 개국



전북극동방송(지사장 한홍근)이 10년의 기다림 끝에 설립 허가를 받고 2월 18일 방송사 공개홀에서 지사장 취임 및 감사 예배를 드렸다. 앞서 2월 15일, 개국을 앞두고 시험 방송 송출을 시작했으며 취임 감사 예배에는 지역 교회 목회자와 운영위원 등 1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축하했다.

전북극동방송은 작년 12월 14일 익산 실내 체육관에서 전북 지역 성도와 시민 8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성균, 강주연 아나운서 진행으로 설립 허가 축하 음악회(사진)를 진행했다. 가청권은 익산과 전주를 비롯한 전라북도 지역이며 오는 4월 13일 개국을 앞두고 있다.



## 창사 11주년 기념식서 김준호 유진영 수상



김준호

유진영

12월 28일 창사 11주년 기념식에서 지난해 한국방송대상 앵커상을 수상한 김준호 아나운서가 최우수 사원상, 메인 뉴스인 <뉴스 M>과 <문학산 음악회>를 비롯한 굵직굵직한 대외 행사에서 뛰어난 진행 능력을 보여준 유진영 아나운서가 우수 사원상을 수상했다.

## IPTV 3사 재송신료 협상 일부 타결



OBS는 현재 지상파 중 유일하게 IPTV 3사로부터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OBS 생존과 시청자 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가 1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기도 한 가운데 2월 22일, OBS는 KT, SK브로드밴드와 협상을 타결했으며 LG유플러스와의 협상 타결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OBS는 남은 KT스카이라이프와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아직 재송신료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지상파 중 유일하게 재송신 대가 산정에서 제외됐던 OBS에 새로운 수익원이 발생하게 됐다는 점과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신입 강지연 아나운서 선발



강지연 아나운서가 tbs 아나운서부의 새 식구가 되었다. 3월 4일 첫 출근한 강지연 아나운서는 뉴스와 프로그램 진행 교육을 거쳐 방송에 투입될 예정이다.

## 봄 개편 단행 아나운서 대거 투입

2월 25일 시행한 봄 개편에서 tbs 아나운서들이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거 투입되었다. tbs TV에서는 김혜지 아나운서가 <TV 책방 북소리>, 조현아 아나운서가 <팩트 IN 스타>의 새 MC로 합류했고, 이가희 아나운서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다시 한 번 맡았다. 또 정연주 아나운서가 tbs FM <라디오를 켜라>의 새 DJ가 되었고, tbs FM <송정애의 좋은 사람들>은 시간대를 옮겨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만날 수 있다.

CBS

봄 개편 맞아 육아휴직 후 복귀한 이지민 등 새 프로그램 맡아

봄 개편을 맞아 진행자 변동이 생겼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1월 28일 복귀한 이지민 아나운서가 오랜만에 <내가 매일 기쁘게>(음악FM 04:00~06:00) DJ로 청취자를 만났다. 이봉규 아나운서가 <주말 뉴

스쇼>(토요일, 표준FM 07:00~09:00), 이지민 아나운서가 <굿모닝 뉴스>(표준FM 06:00~07:00), 채선아 아나운서가 TV 뉴스와 <그대 창가에>(일요일, 표준FM 09:00~10:30) 진행을 맡았다.

신지혜, 포르투 피렌체 파리를 다룬 「세 도시 이야기」 공저

신지혜 아나운서가 아트 저널리스트 천수림, 영화평론가 윤성은과 함께 「세 도시 이야기」를 펴냈다. 포르투와 피렌체, 파리를 각각 여행한 세 사람은 각자의 도시가 품고 있는 문화와 예술을 자신의 색채로 풀

어냈다. 조앤 롤링이 「해리 포터」 시리즈를 집필한 곳이며 백년전쟁이 만들어낸 와인인 있는 곳 포르투, 예술과 패션의 도시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파리, 르네상스를 화려하게 꽃피운 피렌체. 유럽의 세 도시를 세 사람의 고유한 시선으로 그려낸 「세 도시 이야기」는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박재홍,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 좌담 진행



박재홍 아나운서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를 진행했다. 대통령직속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윤경로 기억기념분과위원장, 젊은 역사학자 심용환 작가, 한국교회 예정합동 전계현 총회장, 예정통합 최기학 회장이 출연했다.

BBS

TV 개국 10주년 맞아 선보인 <붓다시네마> 인기



한 이래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 온 BBS TV가 2018년 12월, 10주년을 맞았다. 이에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선보인 프

로그램 가운데 구자준 아나운서(사진 왼쪽)가 진행하는 <붓다시네마>가 있다. 각종 국제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영화 '산상수훈'을 연출한 대혜스님과 함께 불교, 철학, 삶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대한민국 최초 영화 법회 <붓다시네마>에서 구자준 아나운서는 토크 튀는 진행으로 보다 쉽고 친근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의미와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cp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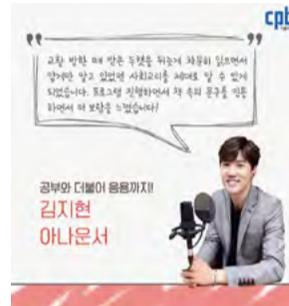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특집 프로그램 진행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10주년을 맞아 아나운서들이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부궁 아나운서는 2월 16일 3,000여 명의 신자들과 함께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된 김수환 추기경 10주기 추모 미사를 생중계했다. 이정민 아나운서는 2월 11일부

터 2월 23일까지 명동 1898광장에서 열린 김수환 추기경 사진전 개막식 사회를 봤다. 김슬애(사진) 아나운서는 추모 토크 콘서트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에 앞서 2월 17일 '내 기억 속의 김수환 추기경'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김지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행복을 여는 아침 '스테파노의 선물'>에서는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의 배우들, 또 안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께 세례를 받은 이동자 씨와 함께 추기경을 기억해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독서 토론회, 교황 추천 청년 사회 교리서 「두캣」 마무리



이 매달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로 전 세계에서 출간된 청년 사

회 교리서 「두캣」을 마무리했다. 「두캣」은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에 대한 가톨릭 교리, 가톨릭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Do+Cat이 합쳐진 말이다. 새롭게 선정된 「한 권으로 정리하는 성경 TOP 10」은 성경 속 중요 인물과 장소, 다양한 사건에 관한 내용을 항목별로 순위를 매겨 정리한 책으로 보다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cpbc 아나운서들은 책 속의 문구를 방송에 인용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jtbc

박성준 팀장 건국대대학원에서 '리더십과 위기 관리' 강의



박성준 JTBC 아나운서 팀장이 2019년 1학기 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과 일반 대학원에서 '리더십과 위기 관리'라는 과목의 강의를 진행한다. 이 강의는

위기 관리에서 요구되는 리더십 요인을 알아보고 주요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리더십에서 언어적인 능력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사건반장>을 진행하면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박성준 팀장은 2010년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6년에는 정치인의 말에 대한 연구서인 <정치 언어의 품격>을 출간한 바 있다.

우리말 다듬기 힘내라, 한국어! ㉓

외래어 발음의 문제점

'Radio News' 제대로 발음하고 있는가?

Radio는 레디오가 아니다 News는 뉴스인가 뉴스일까?



김성준(전 KBS) 언론훈박사

외래어 라디오(radio)를 일반인은 물론 방송인들 중에서도 '레디오'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radio의 발음은 미국식은 레이디오우[reɪdiəʊ]로 소리 나고, 영국식은 레이디어우[reɪdiəʊ]로 소리 난다.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라디오'이다.

라디오의 'ㄹ'을 유음流音 'ㄹ' [r]로 하지 않고, 설측음 'ㄹ' [l]로 하는 경우도 있다. 라디오의 'ㄹ'을 유음인 [r]로 하는지, 설측음인 [l]로 하는지는 유심히 듣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다. 예를 들어 'KBS 라디오'를 '케이비에쓰 radio'로 해야 하는데, '케이비에쓰 ladio'로 하면, '케이비[에쓰라디오]'처럼 설측음으로 된다.

KBS에는 1.2.3라디오가 있다. 그런데 1.2.3 라디오의 외국어가 아닌 외래어로서의 '라디오'라는 발음이 모두 다르게 나온다.

- 1라디오는 [일라디오]로 '일라'의 [라]는 설측음 'ㄹ' [l]이다.
- 2라디오는 [이:라디오]로 '이라'의 [라]는 유음 'ㄹ' [r]이다.
- 3라디오는 [삼나디오]로 '삼나'의 [나]는 설단치조음 'ㄴ' [n]이다.

한국어의 'ㄹ'음은 다양한 소리로 나온다. 이상의 세 개의 발음을 비롯해서 '인류, 한류'에서는 [일류, 한류]로 되면서 구개음 ㄹ [ɻ]로 소리 난다. 그리고 맑다[막따], 밝다[박따]에서는 'ㄹ'이 묵음화 된다.

'경리, 총리'는 [경니, 총니]로 나면서 구개음 ㄴ [n]으로 변한다. 이때의 '니'는 언니, 어머니에서의 '니'와 같은 소리이다.

이렇게 한국어 'ㄹ'은 다양한 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발음이 어렵다. 뉴스와 키스는 같은 돌림 아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고 소리 냈던 말, news의 발음은 [뉴스]일까, [뉴쓰]일까? 많은 방송인들이 뉴스는 짧게 발음하면서, 평음(平音, plain consonant)인 '스'를 경음硬音, fortis)인 '쓰'로 한다. news라는 말은 너무나 쉬운 말이어서 사전을 찾아볼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개 [뉴스, 뉴쓰, 뉴:쓰]로 발음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는 '스'를 평음으로 하면서 장음인 [뉴:스]로 해야 한다.

news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제음성기호(IPA)를 미국식은 [nu:z]로 표기하고, 음성은 [뉴:스]로 나온다. 영국식은 [nju:z]로 표기하고, 음성은 [뉴:스]로 하고 있다. news의 발음은 muse[mju:z]와 같은 계열이다. muse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이다. 대개는 '뮤즈'로 표기하지만 '뮤스'로 해도 된다.

IPA 음성 표기에서 뉴스의 '스'는 [z]로 표기하지만, 키스(kiss)와 에스(s)의 '스'는 [s]로 표기한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키스, 에스로 표기하지만, 언중言衆은 [키쓰, 에쓰]로 발음한다. 마찬가지로 SBS도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에스비에쓰'인데, 언중들은 [에쓰비에쓰]로 하고 있다.

영어에서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마찰음(fricative)으로 '스' 계열은 무성음 [s]와 유성음 [z]가 있다. 외래어 kiss(키스[kis]), x(엑스[eks])에서의 '스'는 무성음으로 경음인 [쓰]쪽에 가깝다. 뉴스의 '스'는 is(이스[ɪz]), rise(라이스[raɪz])와 같은 평음으로 해야 한다. 우리말 외래어에서 영어 음성기호 [z]는 과거에 '즈'로 표기하기도 했지만, 라이온스(lions[láɪənz])에서처럼 '즈'가 아닌 '스'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Zoom-in 박민정(전 MBC) 전 사무총장

## 18년간의 헌신으로 아나운서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다

2007년 초 '아나운서클럽 주소록 제작을 위해 회원과 통화하며 주소를 확인해야 하니 도와달라'는 박민정 사무국장의 요청에 선뜻 응한 것은 대학 시절부터 '아름다운 목소리, 빛나는 서구형 미모에 못지 않게 방송도 잘하던 선배'에게 매료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좋아하는 선배님 돕자고 나선 것이 클럽 회보 발간으로 이어졌고 지금껏 고락을 함께하고 있다. 회보 편집하며 오십견에 시달릴 때 자비自費비로 아로마 마사지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나도 진작에 '나 몰라'라 하고 손을 놓았을 것이다. 늘 넉넉하게 품안은 큰언니 품성을 갖고 주위에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박민정 선배님이 드디어 18년간의 무료 봉사를 접게 되었다니, '이제 좀 편히 지내세요!'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명품 사회를 더 이상 못 본다는 게 아쉽기만 하다. 글 / 편집장 황인우(전 KBS)

### 경력

숙명여대 국문과 4학년 때인 1975년 MBC에 입사해 TV 뉴스, <작은 음악회>, <여보 여보 게임>(차인태 회장과 공동 진행), 라디오 <한밤의 음악편지> 등을 진행하다 <별이 빛나는 밤에>를 연출하던 고장석 PD와 혼인하며 1979년 퇴사했다. 그 후 1980년에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방송과 아나운서, 1983년부터 2000년까지 EBS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교사의 시간>, <부모의 시간>, <경제 이야기>, <교과 특집>을 진행했다. 그리고 1986년부터 1989년까지 KBS 사회교육방송 <현해탄을 넘어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KNC 강남케이블 <주부를 위하여>, 1996년부터 1997년까지 KTV <어제와 오늘> 진행, 2002년부터 2003년까지 HCN 서초케이블 <박민정의 토크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케이블TV C&M <현장대담> MC로 활동했고, 1999년 남편이 만든 좋은프로덕션(주) 이사로 함께하다 2006년 대표를 맡아 2016년까지 운영했다. 또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백화점 본점 현대문화센터에서 스피치, 2005년에 동아방송예술대 강사로 화법을 강의했다.

### 아나운서클럽과 인연은

2001년 당시 MBC 퇴직 여자 아나운서 모임 초록회(종신 회장 임국희)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전영우 회장이 취임하며 새 집행부를 꾸릴 때 클럽 이철원, 임국희 부회장이 추천해 간사로 받을 들여놓게 되었다. '즐거 보던 '사랑방중계'의 원종배 간사와 함께 뉴스 등 방송의 본보기로 존경하던 전영우 회장을 보필해보자' 싶어 즐겁게 승낙했지만, 20년 가까이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후 2004년 클럽에 헌신하신 김규홍 총무가 부회장이 되며 사무국장을 맡았고, 2007년 김동건 회장 취임 시 사무총장으로 직함이 바뀌었다. 너무 오랫동안 맡아 버겁긴 했지만, 사실 얻은 게 많다. 특히 아나운서클럽 덕분에 KBS 출신의 좋은 선배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또 '사람들을 편하게 대한다'는 칭찬을 들으며 나름대로 그릇이 더 커진 것 같다.

### 재임 기간에 추진한 사업은

2005년 사단법인화와 2011년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창간, 2013년 '김동건 방송 인생 50년' 등 대형 행사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다.

2005년 당시 김동건 부회장의 임명으로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는데, 절차가 어찌나 까다로운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최만린 회장님이 직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애써주신 덕분에 11월 25일 법인 설립 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회보 발간은 편집위원들의 헌신과 황우겸, 김동건 고문님 등 광고를 협찬해주는 선배님들 덕분에 어언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회원 간의 유대가 강화되며 아나운서의 위상을 높이는 일임을 실감한다.

김동건 아나운서 방송 인생 50년 기념식은 대사건이었



다. 워낙 인맥이 화려한 분이러 초청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의전까지 신경 많이 썼다. 현역과 협의해가면서 운영위원 몇몇이서 홍보회사에서 할 일을 차질없이 해낸 자랑스러운 행사였다.

그밖에 동작다문화센터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나운서 직업 체험 교육, 바른말실천운동협의회 말하기 교실, 영광시각장애인도서관 영상해설사 양성교육,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창의교실,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재 녹음, 아나운서클럽 주최 바른말 캠페인 등에 직접 참여해왔다.

### 어려움은

사무실과 상근직이 없어 클럽 살림살이를 집에 쌓아두고 매번 보따리 들고 다니던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그러다 아나운서연합회 손범규 회장 재임 시 연합회와 함께 방송회관 사무실을 쓰자고 편의를 봐주어 공공기관에 주소를 올렸을 때 나름대로 뿌듯했다. 그리고 프로젝션을 운영할 때는 직원에게 용돈을 쥐어 주며 부탁하곤 했는데 폐업 후 컴퓨터도 익숙지 않아 애를 먹으며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가계부도 안 쓰고 정리정돈도 잘 못 하는 성격인데, 클럽 일은 일일이 기록하고 서류 정리하는 나를 보며 남편이 '살림 좀 그렇게 해보라'고 핀잔을 주곤 했다. 해외여행 중에도 경조사를 챙겨야 할 때 식구들에게 눈치가 보였던 것도...

### 일화는

2017년 여름, 미국 워싱턴에서 한인방송국을 운영하는 박용찬 대표가 'DVD 등 자사 관련 자료와 함께 미화 1,000달러를 보냈는데, 왜 잘 받았다는 소식이 없느냐?'고 연락을 주셨다. 방송회관 주소로 소포로 부쳤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애가 달았는지 모른다. 그 사이 아나운서연합회가 방송회관 사무실을 안 쓰던 때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반송 처리 전에 관리자가 따로 보관

해주신 덕분에 찾을 수 있었다. 소포 속에 들어 있는 봉투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속에서 1,000달러 우편환을 꺼내선 감격에 겨워 사진도 찍어놓았다

### 잊을 수 없는 사람들

회장님과 고문님 등 회장단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다. '타임지' 강사였던 '겸손과 비움의 송재원 선배님'이 먼저 떠오른다. 2009년 6월 김동건 회장님 취임식에서 아무도 몰라본 송 선배님을 자리에 안내하며 처음 뵈었다. DBS 동아방송 선배인 김 회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셨다는 선배님은 그 후 매년 연회비를 보내 주셨다. 그러다 2015년 3월에 갑자기 길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음을 알리지 못했고, 가시는 길에 동료 아나운서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역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김인숙 선배님의 위엄과 기품'도 여전히 내 맘에 살아있다. 최고령이시나 소년의 감성과 합리적 성품을 지닌 미국의 위진록 선배님, 회보에 발음 이야기를 연재하며 우리말의 뿌리에 대해 일깨워주신 이규향 선배님 등등 아나운서클럽 덕분에 보석 같은 인연이 아로새겨졌다. 그리고 늘 일차으로 연회비를 내주시던 김주환, 이장우 선배님 등 자주 참석을 하지 않으시면서도 빼놓지 않고 회비를 송금해주시는 분들의 존함을 통장에서 확인할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는다.

### 아나운서클럽에 대한 바람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한 아나운서클럽. 컴퓨터 작업으로 최만린 고문님 초청장에 명찰까지 방에 늘어놓고 밤새 작업했던 시간들. 그 밖에 잔일이 꽤 많았는데, 우리 딸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나의 중년은 아나운서클럽으로 채색되었다. 앞으로 클럽이 발전, 유지돼야만 나의 중년은 밝은 색으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의 숙원사업인 사무실과 상근 직원의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로또 당첨되면 클럽에 다 기증할 텐데..." 하시는 황우겸 고문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회원 한 분이 "내 오피스텔을 기증하겠습니다."라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그동안 함께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나오지 않으시면서 등 돌리신 선배님, 모두 함께 열심히 활동하며 같이 갑시다. 길지 않은 인생길에 같은 직업으로, 살아온 공감으로 아름다운 말만 하면서...

### 앞으로

그 동안 녹음 봉사와 봉사자 교육 등 재능기부로 봉사활동 3,000시간을 기록한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인데, 우선 가까운 곳에서부터 봉사해야 되겠더라. 그리고 봉사도 타성에 젖지 않도록 끝내야 할 적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마음 편히 여행 다니며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나의 자랑 아나운서클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만세 만세 만만세!